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회장 왼쪽은 개성공단기업협회 2대 회장을 맡았던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오른쪽은 현 회장인 조경주 석촌도자기 회장. /중기중앙회

“APEC, 남북관계 복원 기회 대화 통해 개성공단 열어야”

개성공단기업협회 기자회견

개성공단기업인들 재입주 희망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뤄지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길 강력하게 희망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랐다. <관련기사 L5>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및 남북경협 복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제2대 회장), 이재철 제씨콤 대표(제9대 회장), 조경주 석촌도자기 회장(현 11대 회장) 등 협회 역대 회장단 및 입주기업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이날 성명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남북한 대화를 통해 남북경협 복원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가 공단 운영의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입주기업 10곳 중 8곳 이

상은 개성공단의 문이 열리면 다시 입주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는 등 이번 APEC은 중요한 찬스”라며 “(문이 닫힌) 지난 10년간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개성공단은 초기엔 57달러 월급으로 시작했다. 이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현지 임금을 평가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현실화를 할 때가 됐다. (북측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 복지도 마찬가지다. 기업들도 북한과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단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간담회를 별도로 갖기도 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기중 최대 목표가 개성공단 복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제로 폐쇄하면서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에 추가로 요청할 뜻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철 제씨콤 대표 겸 9대 협회장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입주기업 피해액은 786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앞서 정부는 투자자산, 유동자산 등에 대해 5787억원을 보상해줬다. 그것도 우리가 보험료로 낸 보험금으로 받은 것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정부가 확인한 금액보다 2074억원을 덜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북아프리카 연결 ‘확장형 네트워크’ 구축

>> 1면 ‘빈 살만 만난 정의선…’서 계속

사우디 전용 스페셜 에디션과 SUV 라인업 확대와 EV·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HEV 등 다양한 친환경 모델 투입도 예고했다. 기아는 신형 ‘타스만’을 플래그십 모델로 육성하고, 사우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맞춘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노린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9월까지 사우디에서 14만96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연말까지 약 21만 대 판매를 목표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룹은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 사우디 주요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네옴(NEOM)과 수소 모빌리티 실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이승용 기자 lsy2665@

이재용·정의선, 젠슨 황 만난다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

〈엔비디아 CEO〉



젠슨 황 CEO, APEC 계기 방한
서울 모처에서 만찬 진행 예정
반도체·SDV 등 협력 논의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는 3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서울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봇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인공지능)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를 위한 한국을 찾은 황 CEO는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GPU)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이후 서울 모처에서 정의선 회장과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도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일정 후 서울로 이동해 황 CEO와 만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찬 회동에서는 반도체, SDV, 로봇틱스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만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활용해 SDV, 로봇틱스 등 모빌리티 설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그룹 산하 로봇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해 엔비디아의 로봇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으로 AI 기반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만찬 회동에서 황 CEO와 이 회장이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채택을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WeConnectScience

질병 앞에 거침없어
과학이다

인류의 삶을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에 없던 신약으로 질병의 걱정을 없애자
과학으로 인류의 건강을 혁신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